

#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강순규, 중남미 여섯나라 이야기 '여행, 길을 잃어도 괜찮아' 출간

"공기의 밀도가 일상과 다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그제야 앞뒤로 둘러싼 배낭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공항 지하에 있는 여행용품 전문점에 잠시 들렀다가 여유롭게 출국수속을 마친 후, 오후 6시15분에 출발하는 밴쿠버행 에어캐나다 비행기에 올랐다. 여행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론니 플래닛' 시리즈를 만든 토니 휠러가 '공항 출국장'이라고 대답했다고 하던가? 출국 전의 설렘과 긴장감이 바지런한 몸속의 세포들로 하여금 비행기보다 먼저 이륙 준비를 하게끔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고보니 7년 만에 홀로 떠나는 배낭여행이다"

강순규씨가 '여행, 길을 잃어도 괜찮아'를 냈다. 중남미 여행을 마음에 품게 된 이유, 여행한 중남미 6개국(멕시코·과테말라·엘살바도르·니카라과·코스타리카·파나마)의 이야기가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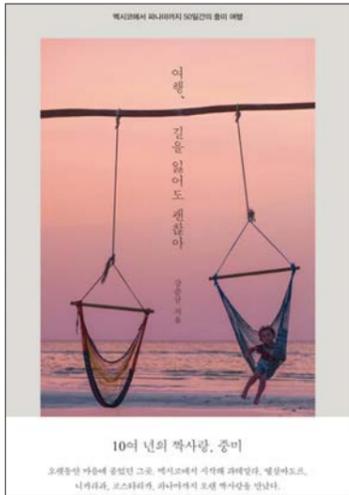
때로 때우어간 문명을 비롯해 메히카·마야문명 등 중미 지역의 찬란했던 고대 역사가 시간 여행의 소재다. 중남미의 정체성에 있어 슬픈 기원이 된 1492년 이후, 이들의 지난했던 저항의 역사도 한 축을 이룬다. 멕시코 피라미드와 이집트 피라미드의 차이, 커피와 마약, 내전과 미국의 간섭, 생태관광, 파나마운하에 도전장을 내민 니카라과운하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행 동선을 따라 펼쳐진다.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고 마르셀 프루스트가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눈'은 여행만 하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울타리 밖에 있는 새로운 풍경과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하지만 그 소통이란 게 공감이 결여된 것이라면 그것은 일방적인 의사 전달이자 자기 복제의 과정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공감을 통해 타자와 공명하는 만큼 새로운 눈도 함께 열린다는 것이다"

"시간 남짓 걸려 도착한 과테말라시티의 띠카 버스터미널, 신원 확인을 위해 내뱉어야 하는 단어들만 잠시 나열하고는 어느 누구도 정적을 깨지 않고 조용히 버스에 오른다. 과테말라에서 치킨봉고에 찌들어 있다 보니 대형 버스타는 존재의 무게가 잠시 부담스러웠지만 이내 그 인위적인 속으로 빠져들었다"

강씨는 "어른이 되기 전에는 내가 속한 무리에 과몰입 시류에 따라 살아왔다. 막연한 미래에 모든 걸 저당 잡히고 현실을 옥죄는 그러한 삶. 하지만 나를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렸는데도 늘 거기서 거기였다"고 돌아봤다.

"세월의 무게가 늘어나면서 삶이라는 게 노력한다고 완벽해지는 것도 아니고, 완벽할 필요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아야 영국에서의 삶이 내게 큰 영향을 준 듯하다. 그렇다고 딱히 어떻게 살고 싶다는 뾰족한 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어느 시점에 대학을 가야 하고, 직장을 다니다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어야만 '정상성'을 획득하는 그러한 틀에 나



를 가두고 싶지 않았다. 생각이 바뀐 것만으로도 조금은 즐기게 됐다. 일상의 무게가 버거워질 때면 가끔은 자발적 경로 이탈자가 되어 나에게 박인 인들을 들춰보며 각박한 마음을 위로할 용기도 생겼다. 그 순간 중남미라는 존재가 불쑥 끼어들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중남미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겐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 496쪽, 1만8000원, 에디터 /뉴스

# 청소년의 마음을 위로하는 62편의 시

박일환 작가 '만렙을 찍을 때까지' 출간

'어릴 적 시소 놀이 할 땐/ 내가 올라가면 네가 내려오고/ 네가 올라가면 내가 내려와서/ 즐겁기만 했는데// 교복 입고 시험 치면서/ 내가 올라가면 네가 내려오고/ 네가 올라가면 내가 내려오니/ 하나도 즐겁지 않네' ('시소 타기' 전문)

1997년 '내일을 여는 작가'로 등단한 박일환(58)의 시집 '만렙을 찍을 때까지'가 나왔다.

30여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한 경험을 녹여냈다. 청소년의 마음을 위로하는 62편의 시가 담겼다.

"어른들은 자신들이 한 말들/ 종종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으니 // 뜻한 바를 이룬 성취감을 알려 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바야흐로 용맹정진 중이다.// 그러나 다들 쉴! ('만렙' 중)

"내가 걸었던 길이 훗날 누군가가 뒤따라올 길이라고/ 옛 어른들이 말하셨으니/ 열네 살 내가 걸었던 길도 영영 묻혀 있지만은 않을 거야 ('어떤 열네 살' 중)

시인은 "이런 것도 시가 되나, 시를 이렇게 써도 되나, 하는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고 싶었다. 시는 무엇보다 자유롭게 열린 공간을 좋아한다"고 한다. "시를 자유



롭게, 읽고 싶은 대로 읽어 주면 좋겠다. 재미없으면 건너뛰고 다른 시를 읽어도 된다. 이제 이 시들은 제 것이 아니라 독자 여러분의 것이니 마음껏 갖고 놀며 즐기시기 바란다. 저는 다시 세상에 굴러다니는 시들을 주우러 가겠다" 104쪽, 8500원, 참비교육 /뉴스

# 국립무형유산원,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18명 선정... 연간 800만원 지원

국립무형유산원이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제도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18명을 선정했다. 지난해 6월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바탕을 이루며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새 지원책이다. 올해 2월 말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현황에 따르면 지정 종목은 142건, 보유자는 167명, 보유단체는 66곳, 명예보유자는 17명, 전수교육조교는 285명, 이수자는 6363명, 전수장학생은 62명에 달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의 추천을 받아 이수자가 된 후 3년 넘게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 전수교육 참여와 전승활동 실적이 탁월한 사람을 1년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한다.

우수 이수자는 기존 공연·전시 등 이수자 지원과 차별화된 새 전승활동을 모색·발굴하고,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와 심화학습 중심의 전승활동을 할 예정이다.

유산원은 이 활동을 위해 제1호 종묘제례악, 제2호 양주별신대놀이 등 국가무형문화재 중



양주별신대놀이.

종목 15개에서 선정한 우수 이수자 18명에게 연간 1인 80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전 종목에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기회균등을 위해 예산 규모에 따라 매년 순차적으로 종목 20개 내외의 우수 이수

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 이수자 추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추천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고, 활동 결과와 지원금 집행내역 제출 의무화, 점검 실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뉴스

# 한국음반산업협회,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 당해

문화체육관광부가 6월30일자로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한다.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등에 대해서다.

문체부가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상금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한 결과 음산협은 '저작권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임의적·자의적 보상금 분배', '보상금 관리 능력과 전문성 부족', '부실한 보상금 정산 및 회계시스템' 등을 지적 받았다.

보상금수령단체로서 더 이상의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공익 목적이 강한 분야에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우선 사용하고 사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음산협은

음반제작자에 대한 음반 이용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분배금액의 일정비율(15~30%)을 수수료 수입으로 처리한다.

문체부는 "보상금수령단체는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의 권리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됨에도, 그동안 음산협과 관련하여 분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취소 처분과 관련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회를 두 차례(2019년 2월15일·3월8일) 열어 당사자의 소명을 들었으며, 청문 결과 취소 결정을 반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하고 음산협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새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 상반기 중에는 단체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뉴스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